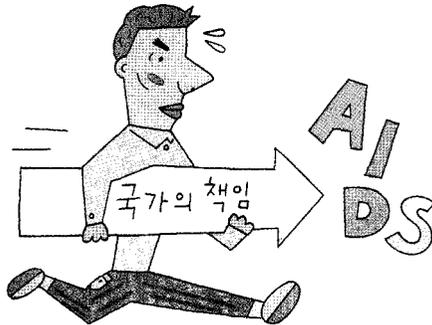


미국의 에이즈관련 법



보건 의료와 관련해서 질병을 국가가 관리하는 데는 여러 근거가 있다. 그중 세계인권협약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제시한 '건강권'의 개념과, 국가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명제가 가장 중요한 근거라 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가 있는가하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소한의 개입만을 하고 대부분은 민간부문에 맡겨두는 나라까지 다양하다. 미국은 후자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보다 광범위한데 전염성 질환은 질병의 속성상 한 사람의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의 대부분을 민간에 맡겨두고 국가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 미국의 경우에도 전염병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염병인 에이즈에 관해서는 매우 많은 조항을 할애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에이즈에 효과

가 있다고 주장되는 새로운 약물과 에이즈 환자들이 사용하는 약물의 효과, 에이즈의 자연사와 병인에 대한 연구를 여러 민간기구에서 수행하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또 에이즈에 감염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감염자를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 서비스 제공의 부문간 연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각종 시범 서비스와 보건의료인력 훈련기관에 대한 기술적 지원, 익명 검사와 상담서비스에 드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주정부가 에이즈 전파를 막기 위한 교육과 정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도 한다.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정보제공과 자료수집, 무료전화상담 등은 연방정부가 직접 실시한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과 함께 자체 예산으로 에이즈와 관련된 프로그램, 정보사업, 조기발견과 중재, AZT의 투여, 치료, 혈액검사와 개인의 비밀 유지, 연구 관련 기밀 유지, 노출되었을 경우 신고, 백신관련 연구지원, 예방접종, 임상실험에

대한 지원 등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주로 신고 및 보고, 검진, 감염자의 보호관리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비하면 미국의 에이즈 관리법은 에이즈의 전파를 차단하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연구와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예방보건서비스,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다른 부분에서 국가의 책임이 그다지 강조되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염성 질환인 에이즈에 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질병을 관리함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에이즈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나라에서도 에이즈로 인한 질병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경찰행정식 관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되었을 경우 환자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며 실질적으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과학적 조치를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A**

김선민 / 한림대 교수